

2월 27일

2월 27일

나렉의 성 그레고리오 아빠스 학자

950년경 옛 아르메니아의 안제바치크 지방에서 태어났다. 문예를 숭상하는 집안에서 자라나 젊은 시절에 외숙부인 아나니아 아빠스가 다스리던 나렉 수도원에 들어갔다. 수도원의 학교에서 살며, 그곳에서 사제이며 아빠스로서 동정 마리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불태우며 온 삶을 바쳤다. 드높은 성덕과 신비 체험의 절정에 이른 그는 여러 가지 신학적 신비적 저술로 자신의 가르침을 증명하였다. 1003년에 「애가」라는 명작을 저술하고 나서 2년쯤 뒤에 세상을 떠났다.

교회 학자 공통, 1776, 또는 성인 공통: 수도자, 1829.

아침 기도

즈가리야의 노래, 후렴 현명한 이들은 청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무궁히 빛나리라.

마침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르메니아 백성의 스승이며 영예인 그레고리오 성인에게 신비로운 가르침을 부어 주셨으니, 저희도 친히 가르치시어, 하느님과 함께 말하는 법을 익히고 저희 삶이 교회의 성사로 끊임없이 힘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저녁 기도

성모의 노래, 후렴 탁월한 학자이며 거룩한 교회의 빛이신 성 그레고리오여, 당신이 하느님의 법을 사랑하셨으니, 하느님의 아드님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이 전례문은 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도좌 추인(2021년 4월 17일, 경신성사성, Prot. N. 164/21)을 받았습니다.